

6.25전쟁시 연구와 분단문학 극복

임도한*

차 례

- | | |
|---------------------|---------------------|
| I. 서론 | IV. 북한문학 이해의 태도 |
| II. 6.25전쟁기 시 작품 현황 | V. 6.25전쟁기 중군문단의 양상 |
| III. 전쟁시의 평가문제 | VI. 결론 |

국문초록

6.25전쟁시를 연구하면서 만나는 대표적 문제 네 가지를 중심으로 6.25전쟁시 연구와 분단문학 극복이 이루는 관계를 점검해보았다. 첫째 전쟁시 작품의 실증적 확인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분량의 6.25전쟁기 작품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 시집에 다양한 성격의 작품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쟁시 여부는 시집 단위 보다는 작품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로 전쟁시는 남북한 전쟁시의 공통점인 ‘고향심상’과 ‘가족애’, ‘민족주의’ 등에 주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쟁이라는 역사적 체험을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또 다른 체험과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이 전쟁시의 독특한 의의라 하겠다.

* 공군사관학교 교수

셋째 북한작품을 강한 정치성을 지적하면서 배척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로서 차이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태도가 유용하다. ‘당파성과 감상성’ 또는 ‘서정시와 서사시’와 같은 대립항을 설정하고 두 개념 사이에 각각의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한 연구사례를 들어 점검해 보았다.

넷째 전세기 문인들의 계보와 문단 동향을 어느 정도 확인해보았다. 전세기 문단은 평범한 문인이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분단문단의 단초를 보여준다. 이 부분은 보다 치밀한 실증적 성과가 더 축적되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

6.25전쟁시 연구는 문학사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는 전세기 시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한 기본 작업이다. 전쟁시라는 강한 특성에 비추어 남북한의 작품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과가 쌓인다면 분단문학을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주제어 : 6.25전쟁시, 전쟁체험, 분단문학, 당파성, 감상성

I. 서론

1945년 우리민족은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을 동시에 겪어야 했다. 광복의 기쁨은 한 순간이었으나 분단의 아픔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65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실제적인 현대사는 남북한 분단의 역사인 것이다. 38선을 기점으로 나뉜 분단이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휴전선을 기점으로 나뉜 현재의 분단은 6.25전쟁이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체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족 구성원 각자의 삶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에 걸쳐 진행된 6.25전쟁은, 무대는 한반도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 국제정세와 맞물려 진행된 국제전이었고 그 어느 전쟁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컸던 전쟁이었다. 전선이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움직이면서 한반도 전역이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가족이 고향 상실과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아직까지도 사상자에 대한 통계수치가 조사 기관에 따라 백만 명 이상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당시 상황의 열악성을 잘 보여준다. 국방군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남북한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 수가 약 5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6.25전쟁은 엄청난 비극의 전쟁이다.¹⁾

필자는 1990년대 초 석사논문²⁾을 준비하면서 6.25전쟁기의 시 작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6.25전쟁기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문학사에서 6.25전쟁기의 작품에 대하여 당시 이념전쟁을 수행하는데 기여한 중군작품을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되는데 그치고 있었기에 연구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반 역사와 문학사가 동일할 수는 없겠으나 6.25전쟁의 현대사적 위상을 고려할 때 6.25전쟁문학의 문학사적 위상이 실제보다 미흡한 상태로 보였다. 중군작품이 어떻게 전쟁에 기여하며 전쟁이라는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전시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작품이 창작되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남한에서 출간된 단행본 시집 110권의 목록을 확인하였고 100여 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6.25전쟁기의 발표작품 모두를 전쟁시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특정 작품을 전쟁시로 규정하거나 한 시집을 전쟁시집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작품의 실증적 조사 이후의 문제이다.

전체 작품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특정 시집의 작품에 국한하여 문학사적 의의를 논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1) 국군과 UN군 사상자가 약 77만 6천명, 북한군과 중공군 사상자가 약 203만명, 남북한 민간인 사상자가 약 249만 명에 이른다. 『한국전쟁 피해 통계집』(서울:국방군사연구소, 1996) 145쪽 참조.

2) 임도한, 「한국전쟁기 전쟁시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994).

따르면 소수의 시집을 제외하고는 주제별로 분류하기 어렵다. 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하는 작품과 전쟁을 비판하는 작품 심지어 현실도피적인 작품까지 한 시집에 수록된 경우가 많다. 전쟁시 작품에 대한 평기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편차를 보이므로 실증적으로 작품을 확인한 후 각각의 작품을 모아서 다루는 것이 전쟁시 연구의 기초작업이라 하겠다.

6.25전쟁시가 필자의 관심을 끈 또 하나의 이유는 전쟁문학이라는 강한 성격에 기대다면, 이질적인 남북한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다룰 수도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다루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이 공통점은 상대방에게 총탄을 날리며 대결했던 상황의 적대감을 넘어설 정도의 근본적인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공통점이라면 분단을 넘어 통일문학의 모습을 구성할 때 중요한 추진력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시 중에서 강한 정치성을 띤 작품의 경우 북한의 작품이 남한의 작품보다 직설적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없다. 의도가 강하여 야기된 미학적 아쉬움을 반성하는 태도도 남북한 모두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미학적 노력의 방향에서는 남북한이 차이를 보인다. 남한은 시의식의 심화와 새로운 문명에 대한 수용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했으나 북한은 더욱 철저한 목적의식을 고수하면서 전통적 정조와 관련된 형식의 계승 문제로 나아갔다.

작품의 내용 면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으로는, 평화로운 전원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상태를 지향하는 점과 민족의 자주적인 독립을 위해 동포를 서로 용서하는 태도를 주장하는 점, 어머니나 누이와 같이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겪는 비극을 강조하여 감성적 동조를 이끄는 점 등이 있다.

필자는 6.25전쟁시를 연구할 때 만나게 되는 문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6.25전쟁시 연구가 분단문학 극복 측면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네 가지 문제 중 첫째는 전쟁기 작품의

실증적 확인 문제이다. 전쟁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쟁기의 전 작품을 대상으로 확인해야 하고 전란을 겪고 남아있는 작품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

둘째 전쟁시의 평가 문제가 있다. 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하는 작품과 반전의식을 표출한 작품, 전쟁이라는 비일상적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 등에 대한 연구자 나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북한문학 작품을 다루는 태도의 문제이다. 이는 정치성 강한 작품에 대한 미학적 평가 문제와 밀접히 닿아 있다. 북한 작품에 대한 이해와 배척의 논리를 점검하고 분단의 차이를 넘어서는 논리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해방공간과 전후시대를 이어주는 전쟁기 문단의 양상을 규명하는 문제가 있다. 문학사에서 6.25전쟁기를 온전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방과 함께 좌우익으로 대립하던 문인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전후 분단문단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실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실증적 작업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지만 향후 각 문인에 대한 연구와 지역문학 연구의 축적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II. 6.25전쟁기 시 작품 현황

작품 현황을 언급하기 전에 필자가 쓰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전쟁시’는 전쟁문학의 하위 개념으로서 일반적인 전쟁시를 의미한다. ‘6.25전쟁기 시’는 6.25전쟁기간에 발표된 작품으로서 모든 장르의 시 작품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6.25전쟁시’는 전쟁시 중에서 6.25전쟁과 관련된 전쟁시 작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6.25전쟁기의 전쟁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쟁기간의 작품을 최대한

발굴하여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한의 경우 전쟁기의 작품을 조사하다보면 전란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작품이 발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약 110권의 단행본 시집을 확인하였다. 단행본 시집 외에도 『문예』, 『학원』, 『자유세계』, 『신천지』 등의 문예지와 『전선문학』, 『공군순보』, 『코메트』, 『해군』, 『국방』 등의 군 기관지에 발표된 작품도 상당수 있다. 이들 작품들 중 대부분은 전쟁기의 단행본 시집에 다시 수록되었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석사논문에서 70권 정도의 작품을 확인하고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석사논문 이후 2002년까지 추가 확인하여 모두 약 100권의 작품 내용을 확인하고 기존 논문에 대한 주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논의를 보완한 바 있다.³⁾

전쟁기 시집의 실증적 연구로서 박태일의 작업⁴⁾이 돋보인다. 박태일은 시집 89권의 서지 사항을 확인하고 원본을 직접 눈과 손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72권에 대하여 정리하였다.⁵⁾ 필자가 조사한 내용과 박태일의 작업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집의 수준을 상당부분 규명하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의 표는 두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6.25전쟁기에 간행된 시집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모두 109권이 조사되었다. 비고란에 연구자의 이름을 표시한 것은 두 조사 결과 중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이며 서지라고 언급한 것은 실제 작품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임을 뜻한다. 동일한 시집에 대해 두 연구자가 상이한 내용으로 파악한 경우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차이를 밝히고 상호 확인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3) 임도한, 「6.25전쟁기 전쟁시 연구」, 『공사논문집』50(2002. 8.) 전쟁기 시집 102권의 목록은 이기윤, 신영덕, 임도한 편, 『한국전쟁과 세계문학』(국학자료원, 2003) 63-67쪽 참조.

4) 박태일, 「경인전쟁기 간행 시집 문헌지」, 『한국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소명출판, 2004).

5) 박태일, 위의 책, 226쪽 참조.

1951년 간행 시집 목록(26권)

저 자	시 집 명	출 판 사	비 고
공군 정훈감실	『창공』	공군본부	박태일(서지)
구경서	『폭음』	삼익출판사	
구 상	『구상』	청구출판사	
김상기	『창과』	경남경찰국	
김 송 편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김세익	『석류』	대한문화사	
김영덕 편	『꽃다발』	군경위문수첩발간위원회	
이운수	『전선수첩2』	문충경북지대	
김춘수	『기』	문예사	
모운숙	『풍랑』	문성당	
박거영	『악의 노래』	국제신보사출판국	
박병규, 박종선	『조국의 노래』	청구출판사	
박 양	『별과 나무 밑에서』	남광문화사	
백기만 편	『상화와 고월』	청구출판사	
서덕출	『봄편지』	대한문화사	임도한(서지)
서창수	『호롱』	청구문화사	
심 훈	『그날이 오면』	한성도서	
오종규 외	『답울음』	학생시우회	임도한(서지)
류치환	『보병과 더불어』	행문사	
이동주	『혼야』	호남공론사	
이성환	『황혼선』	미확인	박태일은 『황혼가』로
이영순	『연희고지』	정민문화사	
이경순	『생명부』	미확인	『삼인집』 (1952)에 수록
이용상	『아름다운 생명』	시문학사	
이효상	『바다』	대건출판사	
조영암	『시산을 넘고 혈해를 건너』	정음사	

1951년에 간행된 시집은 현재까지 총 26권이 파악되었다. 이 중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간행한 『창공』은 박태일이 연구에 소개된 시집으로서 서지사항만 밝혀져 있으며 필자 역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자료이다. 6.25전쟁 당시 공군 중군작가단이 시집 『창공』을 발행하였고 기관지로

『창공』을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는 바 이 시집이 『창공』의 오기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⁶⁾ 이성환의 시집 『황혼가』(1952)의 경우는 이름만 언급하고 있으나 1951년에 간행된 이성환의 『황혼선』⁷⁾이 목록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황혼선』의 오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경순의 『생명부』는 1951년에 간행됐다는 기록만 확인할 수 있는데 1952년에 간행된 『삼인집』에 속에 ‘생명부’란 이름 아래 이경순의 작품들이 모아져 있다. 『삼인집』 속의 내용이 시집 『생명부』(1951)의 모든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952년 간행 시집 목록(42권)

저 자	시 집 명	출 판 사	비 고
강세균 편	『애국시 33인집』	대한군사원호문화사	
경북대사범대국문학회 편	『조선현대시집』(초기)	미확인	박태일
김경수	『꽃과 바다』	미확인	임도한(서지)
김관식	『낙화집』	창조사	
김도성	『갈대』	문원사	
김동흙, 신정환	『金鳥(I)』	삼일신문사출판국	임도한
김상길 외	『多島海』	민성문화사	
김상옥	『석류꽃』	현대사	
김상화	『계산기가 놓여있는 진찰대』	국제신보	
김송월	『님의 노래』	괴산무화사	
김용팔	『폐허』	광지사	
김용호	『푸른별』	남광문화사	박태일(1951년)
김용호	『남해찬가』	남광문화사	
김종문	『벽』	문헌사	
김 호	『수액』	박문출판사	
문도채	『쌈지』	태문당서점	
박양균	『두고온 지표』	춘추사	
박용문	『신앙시조집』	대구문화청년회	
박일송	『주마간산』	농민신보사	

6) 신영덕,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37쪽 참조.

7) 이성환의 『황혼선』(1951)은 필자가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복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저 자	시 집 명	출 판 사	비 고
박종호	『월탄문학선』	수도문화사	
서덕출	『봄편지』	자유문화사	박태일
서정봉	『반딧불』	동국문화사	임도한(서지)
신석정	『촛불』	대지사	
설창수 외	『삼인집』	영남문학회	『생명부』(1951) 수록
이로인	『구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이민영 외	『시간표 없는 정치장』	협동문화사	
이설주	『미륵』	춘추사	
이영순	『지령』	문총사	
이종두	『령』	세문사	
이한직 편	『한국시집(상)』	대양출판사	
임해림	『노변의 풀잎』	한국문화사	
장호강	『총검부』	삼성출판사	박태일(1953년)
정문원, 이덕성	『조락의 모닥불』	문총사	
정운봉	『봄피리』	미확인	임도한(서지)
조경호	『한국의 절규』	정치신문사	박태일
조경호	『아이크네의 선물』	정치신문사	박태일
조병화	『패각의 침실』	정음사	
조지훈	『풀잎단장』	창조사	
하재린	『흰머선』	자가본	
해군해병군목 편	『포도원』	해군해병군목실	
허 연	『새싹』	미확인	박태일(서지)
효암동인 편	『중』	효암동인회	

1952년에 간행된 시집으로는 42권이 파악되었다. 경북대 사범대 국문학회 편, 『조선현대시집(초기)』과 서덕출의 『봄편지』, 조경호의 『한국의 절규』와 『아이크네의 선물』 등 4권은 박태일의 연구를 통해 처음 소개된 것이다. 김용호의 『푸른별』과 장호강의 『총검부』는 간행연대가 필자가 조사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라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김경수의 『꽃과 바다』, 서정봉의 『반딧불』, 정운봉의 『봄피리』는 필자도 서지사항만 확인하였을 뿐 작품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시집이다.

1953년 간행 시집 목록(40권)

저 자	시 집 명	출 판 사	비 고
계용목	『혹산호』	우생출판사	시가 포함된 기념문집
경북대사범대국문학회 편	『조선현대시집』(중기)	미확인	박태일
김남조	『목숨』	수문관	
김상옥	『의상』	현대사	
김소운	『조선시집』	창원사	임도한
김수돈	『우수의 황제』	대한문화사	
김순기	『용사의 무덤』	동서문화사	
김순기	『이등병』	동서문화사	
김영삼	『푸른섬』	동문사서점	
김오남	『김오남시조집』	성동공고	
김일로	『꽃씨』	미확인	임도한(서지)
김중문	『불안한 토요일』	보문각	임도한
김춘수	『린인』	문예사	임도한
김해성	『해몽』	표시 없음	임도한(박태일, 서지)
노영란	『화려한 좌표』	자유장	
노일영	『호롱불』	동해당	임도한
노천명	『별을 쳐다보며』	희망출판사	
동국대	『동국학생시집2』	동국대	임도한
박기원, 최재형	『한화집』	현대사	
박두진	『오도』	영웅출판사	임도한
박용목	『신에보』	은총문화협회	
박일송	『목련화』	한국문화사	
서정봉	『소정시초』	현대사	임도한
서정주	『작고시인선』	정음사	
유근주	『투혼에 산다』	건국신보	
윤형중	『사말의 노래』	경향잡지사	
이상노	『귀로』	백조사	
이설주	『유수곡』	춘추사	
이원섭	『향미사』	문예사	
이중한	『프른 하늘과 더불어』	청춘사	임도한
이한직 편	『청룡』	해병사정훈감실	임도한
장태현	『담수어』	민계사	임도한
정진업	『김해평야』	남지문화사	
정현장학회	『산화초』	정음사	

저 자	시 집 명	출 판 사	비 고
주세중	『농민의 노래』	미확인	임도한(서지)
포도원 동인	『포도원』	미확인	임도한
한무학	『새로운 초의 속도』	세계평론사	
한하운	『한하운시초』	정음사	박태일(1950년)
함석헌	『수평선 너머』	삼협문화사	
황양수	『문』	남광문화사	임도한
호남11인	『시와 산문』	향도문화사	임도한

1953년의 시집으로는 모두 40권이 조사되었다. 경북대 사범대 국문학회의 『조선현대시집(중기)』 역시 박태일의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로의 『꽃씨』와 주세중의 『농민의 노래』는 필자도 서지사항만 파악한 시집이다.

한하운의 『한하운시초』(정음사, 1950)는 필자는 1953년의 시집으로 알고 있었으나 박태일의 조사에 따르면 1950년에 간행된 경우로 확인된다. 계용묵의 『흑산호』는 시집이라기보다는 계용묵을 포함한 여러 문인들이 제주도에서 엮은 기념 문집이다.

이상과 같이 6.25전쟁기에 간행된 시집 총 109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용 파악까지 완료된 것은 약 100권이다. 시집의 시인들 중 상당수는 해방 전부터 활동하던 기성 시인과 전후 남한 문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신인들이다. 모운숙, 김윤성, 공중인, 조지훈, 서정주, 김송, 이한직, 구상, 이원섭, 조영암, 함윤수, 김영삼, 양명문 등 중군작가로 활동했던 시인들이 시집을 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중군활동과 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른 시인에 비해 비교적 활발히 작품 활동에 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행본 시집이 아니라 각종 문예지나 군 기관지, 신문 등에 발표된 작품에 대한 조사 성과로는 신영덕의 중군시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2002년)⁸⁾와, 필자의 공군 기관지 수록 작품에 대한 연구(2006년)⁹⁾ 그리고 이

8) 신영덕의 「한국전쟁기 중군시인들의 전쟁시 연구」,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

승하의 『전선문학』 수록 작품에 대한 연구(2008년)¹⁰⁾가 중요하다.

신영덕은, 종군시인의 활동상을 정리한 연구의 추가 자료를 통해 종군시인 21명의 작품 목록을 제공하였다. 이 내용 중에서 단행본 시집에 발표된 작품을 제외하고 각종 문예지와 군 기관지 등에 수록된 작품만 간추리면 모두 56편이다.¹¹⁾ 신영덕은 6.25전쟁시를 ‘전쟁독려시’와 ‘전쟁비판시’로 양분하여 다루었고 전쟁시의 의의로서, 전쟁경험의 시적 형상화를 통해 전쟁의 비인간적 성격을 암시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²⁾

필자는, 1950년대 공군의 기관지였던 『공군순보』와 『코메트』에 수록된 시 작품 186편을 분석하였다. 186편의 작품 중에서 전쟁기간에 발표된 것은, 『공군순보』에 수록된 11편과 『코메트』에 수록된 21편을 합하여 모두 32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작품 역시 필자가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전쟁참여시’와 ‘전쟁비판시’로 분류할 수 있다.

‘전쟁참여시’는 전투상황을 박진감 있게 다루면서 전쟁의 독특한 체험을 형상화하거나 전란의 희생을 애도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승전의식으로 연결시키거나 강한 조국애와 이념의 우월성을 노래하는 작품성향을 보인다. ‘전쟁비판시’는 전쟁의 부당함과 반생명성 등을 비판하거나,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작품이다.¹³⁾

이승하는 1990년대 이후 발표된 개별 단위의 연구보다는 단행본 문학사 속의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사를 검토하고, 6.25전쟁기 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관점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6.25전쟁기를 문학적

학자료원, 2002.

9) 임도한, 「1950년대 전쟁시의 일면」, 『2006한국전쟁문학세미나 발표집』, 2006. 10. 20.

10) 이승하, 「6.25전쟁 수행기의 한국시 연구 : 『전선문학』 발표 시를 중심으로」, 『배달말』 42호, 2008. 6.

11) 신영덕, 앞의 책, 263-270쪽 참조.

12) 신영덕, 앞의 책, 261쪽 참조.

13) 임도한, 앞의 발표집, 56쪽 참조.

공백기로 보는 관점, 둘째 전쟁시로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는 관점, 셋째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넷째 모더니즘 시의 명맥을 이은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 이상 네 가지이다.¹⁴⁾

이승하는 두 번째 관점에 동의하면서 육군 중군작가단의 기관지였던 『전선문학』에 수록된 작품을 분석하고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승하는 시인 24명의 작품 35편을 확인하고 이들 작품이 당대 문단의 특징을 잘 보여줌에도 기존의 문학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음을 비판한다. 이승하의 작품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시 8편¹⁵⁾, 둘째 군인과 군민의 사기를 앙양하는 시 10편¹⁶⁾, 셋째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순수 서정시 8편¹⁷⁾, 넷째 종전과 평화를 갈망하는 시 9편¹⁸⁾이다. 이승하는 35편의 작품 모두 시인이 6.25전쟁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문학사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전쟁시 자료는, 남한의 자료에 비해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작품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전쟁기에 간행된 자료 속의 작품을 최대한 발굴하고 전쟁 이후에 간행된 자료 속에서도 전쟁기에 창작된 것으로 언급된 것은 적극 수용하여 파악하였

14) 이승하, 앞의 논문, 97-99쪽 참조.

15) 이덕진의 <피의 능선>, 장만영의 <척후병을 보내며>, <석양소묘>, 양명문의 <메아리>, 박목월의 <총성>, 전봉건의 <그렇게 머리가 있는 호>, 이상로의 <건토>, 김봉룡의 <누이에게>.

16) 장호강의 <송정보>, <포성 밑에도 꿈은 땀나니>, 박양군의 <귀환병>, 천상병의 <무명전사>, 양명문의 <찬가-수도사단에 드리는>, 김순기의 <전선의 호흡>, 이호우의 <깃발>, 설창수의 <돌맹이>, 김종문의 <유월의 항거>, 이설주의 <유구한 강산>.

17) 박두진의 <아침에>, <바다와 숙>, <절벽>, 유치환의 <고독>, <낙과집>, 김요섭의 <포도>, 박훈산의 <절벽 위에서>, 최계락의 <가을>.

18) 장만영의 <다시 좋은 계절이 왔다>, 신동집의 <얼굴>, <악수>, 이윤수의 <나무>, 이영도의 <고가>, <빗소리>, 김종문의 <화강암에>, 이덕진의 <기원>, 이형기의 <들길>.

다. 필자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통해, 6.25전쟁기에 창작된 북한의 시 작품으로서 약 250편¹⁹⁾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내용을 확인한 단행본 개인시집 10권은 다음과 같다.

김랍인²⁰⁾의 『강철청년부대』(금성청년출판사, 1989), 김복원의 『남해가 보인다』(문예출판사, 1986), 박석정의 『박석정 시 선집』(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박팔양²¹⁾의 『박팔양 시 선집』(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심봉원의 『전호 속의 나의 노래』(문예출판사, 1987), 임화의 『너 어느 곳에 있느냐』(문화전선사, 1951), 정문향의 『승리의 길에서』(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정서춘²²⁾의 『정서춘 시 선집』(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조벽암²³⁾의 『벽암시선』(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조명암²⁴⁾의 『조명암 시선집』(이동순 편, 선, 2003)

시 모음집으로 『해방후 서정시 선집』(문예출판사, 1979)과 『조선문학사 작품선집 2』(학우서방, 1982)이 있고 다음의 북한 문학사 속에서도 전쟁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안함광의 『조선문학사』(교육도서출판사, 1956), 『조선문학통사(하)』(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59), 『조선문학사』(교육도서출판사, 1964), 『조선문학사(1945-1958)』(과학백과사전출판사,

- 19) 정남채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필자의 연구 내용을 인용하면서 ‘250편’을 ‘250권’으로 오독하여 북한의 시집이 남한에 비해 양적으로 앞선다고 기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정정이 필요하다. 정남채, 「한국전쟁기 종군시의 주제의식과 미적특성 연구」, 경성대 박사학위 논문, 2007, p.8. 참조.
- 20) 김일성 항일유격대 참가, 일제강점기 공산주의 운동, 팜플렛 제작 배포로 투옥 경력, 6.25전쟁 시 후방교란부대 참가 종군활동, 재차 종군 중 전사, 김정일의 부상과 함께 특별히 부각된 시인임.
- 21) 1946년 경 1차 월북자,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계열(카프비해소파), 북조선 건국부터 1950년대 말까지 당 문예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북한 문단을 주도해 나간 실질적 세력, 시적 형상화를 통해 나타나는 사상성, 즉 당파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였고 박세영, 박아지, 박팔양 등과 유사함.
- 22) 북한출신 신진 시인들인 조기천, 김순석, 동승대, 이맥, 정문향, 강승한, 한명천, 백인준 등과 함께 전후 북한문단의 실질적 주도세력으로 활동함.
- 23) 구인회 멤버, 1949년 월북, 평양문학대학장 역임, 1985년 사망.
- 24) 가요 『신라의 달밤』의 작사자, 1948년 월북, 1993년 사망.

1978), 『조선문학개관Ⅱ』(사회과학원출판사, 1986), 『조선문학사(10~13권)』(사회과학출판사, 1991-1996)

이상의 자료 외에도 문화전선사에서 간행한 월간지인 『문학예술』과 노동당 기관지였던 『로동신문』²⁵⁾에 수록된 작품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Ⅲ. 전쟁시의 평가 문제

전쟁시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²⁶⁾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전쟁문학 또는 전쟁시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있다. 전쟁문학 작품의 양상은 전쟁 수행에 동참하는 의도가 강한 참여문학 작품과 전쟁의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우는 휴머니즘적 반전문학 작품이 전쟁문학 작품이 연출하는 스펙트럼의 양 끝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전쟁문학 논의 초기에는 두 가지 성향 중 반전문학의 의의만을 강조하는 태도²⁷⁾가 주도적이었으나 점차 정치적 성격을 전쟁문학

25) 확인한 『로동신문』 발행일자는 1951년 1월 1일, 8-9일, 13-28일, 2월 2일, 15일, 17일, 19일, 3월 9일, 4월 16일, 18일, 20-21일, 28일, 6월 20일, 7월 16-19일, 8월 22일, 1952년 1월~1953년 7월 27일.

26) 6.25전쟁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신익호, 「전쟁문학 소고-6.25 이후 한국시에 나타난 전쟁관」, 『3사논문집』8, 1978.
 김재홍, 「6.25와 한국문학」, 『시와 진실』, 이우, 1984.
 이동근, 「한국전쟁(6.25) 시의 주제양상고」, 『3사논문집』20, 1985.
 최진송, 「중군시의 의미와 분단극복」 『동의어문논집』, 1988. 4.
 이지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전쟁체험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1989.
 박태일, 「1950년대 한국 전쟁시 연구」, 『경남어문논집』5, 1992.
 오세영, 「한국전쟁문학론 연구」, 『서울대인문논총』28, 1992.
 임도한, 「한국전쟁기 전쟁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이지엽, 『한국 전후시 연구』, 태학사, 1997.
 신영덕, 「한국전쟁기 시인들의 종군활동 연구」, 『국어국문학』122, 1998. 12.
 홍용희,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시적 대응 비교 고찰」, 경희대 『인문학연구2』, 1998. 12.

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용하면서 참여성과 반전성 모두를 포괄하는 입장²⁸⁾으로 발전한다. 최근에는 전쟁체험이 독특한 문학적 체험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쟁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려는 입장의 연구들이²⁹⁾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전쟁문학의 가장 큰 의미가 전쟁이라는 독특한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문학이 인간의 체험을 반영한다면, 전쟁문학은 비일상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지닌 전쟁 체험이 문학적 체험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전쟁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발달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곳곳의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접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란 대부분의 사람에게 비일상적 체험임이 분명하다. 전쟁이 주는 독특한 체험이 문학의 토대인 인간사의 한 모습으로서 작품 속에 녹아들고 그것이 그 작품 나름의 독자성을 지닐 때 전쟁문학의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전쟁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해당 전쟁의 성격과 나누어 생

-
- 27) 정봉래, 「전쟁문학론」, 『자유문학』, 1960. 1.
 백 철, 「전쟁문학의 개념과 그 양상」, 『세대』, 1964. 6.
 조병락, 「전쟁문학에 관한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3, 1965.
 김석구, 「한국전쟁문학서설」, 『군산교대 논문집』1, 1967.
 곽중원, 「전쟁문학이란 무엇인가」, 『월간문학』12, 1969.10.
 윤병로, 「전쟁문학 시론」, 『성균관대학교 논문집』24, 1977.
 28) 김태진, 「전쟁문학연구」, 『용봉논총』2, 1973.
 오영식, 「한국전쟁문학론」, 경희대 석사논문, 1974.
 오현봉, 『한국현대문학의 사회학적 시고』, 형설출판사, 1990.
 오세영, 「한국전쟁문학론 연구」, 『서울대인문논총』28, 1992.
 29) 한정호, 「경인전쟁기 시의 가족체험」, 『지역문학연구』6, 2000. 10.
 문선영, 『한국전쟁과 시』, 청동거울, 2003.
 임도한,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체험성 연구」, 『한국시문학』15, 2004. 12.
 정남채, 「한국전쟁기 중군시의 주제의식과 미적특성 연구」, 경성대 박사논문, 2007.
 한경희,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국가주의의 시선」, 『한국시학연구』21, 2008. 4.
 이승하, 「6.25전쟁 수행기의 한국시 연구 : 『전선문학』 발표 시를 중심으로」, 『배달말』42, 2008. 6.

각할 수 없다. 전쟁은 전쟁 당사국 나름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전쟁의 후유증 역시 전쟁 당사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과 맞물려 진행된다. 전쟁 문학 작품을 문학사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동일한 전쟁을 다룬 작품일지라도 그 작품이 해당되는 문학사적 의미망 안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문학사에서 전쟁문학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6.25전쟁을 계기로 시작된다.³⁰⁾

필자는, 전쟁 체험이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어떻게 작품화되었는지, 그 결과가 해당 문학사의 폭과 깊이를 어떻게 더해주었는지 여부를 고찰하는 것이 전쟁수행에 적극 참여하였는지 아니면 반전적 태도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우선적 문제라 생각한다.³¹⁾ 6.25전쟁을 다룬 작품은 6.25전쟁에 대한 남북한의 역사적 의의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 문학사에서 남북한의 문학은 분단 6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다방면에서 이질화 현상을 보인다. 남한의 문학은 독자성과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지만 북한의 문학은 당의 정치적 지도에 종속되어 도식성을 강하다. 한국전쟁 초기의 전쟁문학은 남북한 공히 전쟁 수행에 대한 강한 참여성을 보인다.

남한의 경우 유무형으로 존재하던 창작 지침이 작가의 상상력을 제한하였고 그 결과 독자의 감동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이는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도식성이 강한 작품에 대한 비판은 전쟁 자체에 대한 반감

30) 6.25전쟁 체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에는 일제시대의 전쟁문학론이 비평가에게 중요한 기준으로 영향을 끼쳤다. 정선태는, 논문 「총력전 시기 전쟁문학론과 종군문학 : 『보리와 병정』과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5, 2006. 9.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친일문학론을 옹호한 박영희와 김기림의 논리를 기준으로 하여 6.25전쟁기 남북한 종군문인의 강한 정치추수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31) 최근 천암함 회생장병을 추모하는 작품으로 네티즌 윤승호의 <수병은 묵언으로 답한다>와 김덕규의 <777함 수병은 귀환하라>가 많은 국민의 공감을 이끈 경위를 볼 때 참여성 짙은 작품이라고 평가 절하하기보다는 당대의 정황과 독자의 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과 어우러지면서 전쟁 참여문학 작품 전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였다. 이 부정적 태도는 전쟁문학 작품에 대한 미학적 비판으로 발전하였고 전후 반전의식과 결합되어 반전문학만을 바람직한 전쟁문학으로 간주하는 문단적 태도의 바탕이 되었다.

6.25전쟁기 남한의 전쟁시는, 선전선동을 위한 구호와 같은 작품들에서부터 전쟁이 극심함에 지쳐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작품, 전쟁과 전쟁을 야기한 이념적 대립상을 비판하거나 전쟁을 낳은 현대문명 자체를 비판하는 작품, 전투현장의 박진감 넘치는 상황을 작품으로 생생하게 구현한 작품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전후 모더니즘 계열의 시로 이어지는 실험적 작품도 활발히 창작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평화로운 전원을 무대로 가족애에 기반한 사랑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과 민족이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동포를 서로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당위적인 태도가 남북한 전쟁시의 공통점으로 주장한 바 있는데 진순애의 최근 작업³²⁾은 필자보다 더욱 세련된 논리를 보여준다.

진순애는 한국의 전쟁시를 “전쟁기간의 전쟁시에서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분단, 통일, 반미, 평화’ 등의 어휘와 함께 지금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시로 보”면서 남북한의 분단시와 통일시에 근대 이전의 민족의 동질성을 상징하는 시적 모티브가 공통적으로 등장함을 주목하였다.³³⁾ 진순애가 말하는 ‘근대 이전의 민족의 동질성을 상징하는 시적 모

32) 진순애, 「남북한 분단시와 통일시에 있어서의 평화의 정치성 연구」, 『批評文學』 26, 2007. 8.

33) “삶의 원리로서의 평화주의’를 실천하는 남북한 ‘분단시’는 ‘탈근대성의 정치성’으로, ‘통일시’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이원적 원리 속에서 평화의 정치성을 구현한다. 남북한 ‘분단시’가 공통적으로 구현한 탈근대성은 ‘고향심상’에 의한 ‘원형주의’이다. 이는 ‘삶의 원리로서의 평화세계’를 고향에 두고 있는 ‘탈근대성의 정치성’이다. 곧 근대 이전의 원형 세계에 평화의 정치성을 상징한 남북한 분단시는 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상태는 개인들의 근원인 원형세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음을 표상한다. 무의식적으로 평화로운 삶의 상태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티브'가 앞서 필자가 밝힌 남북한 6.25전쟁시의 공통점인 셈이다. 진순애는 이 공통점을 '원형주의'와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지평이라 주장한다.³⁴⁾

필자는 전쟁시를 전쟁에서 비롯된 주제를 다룬 시로 규정하는데 동의한다. 전쟁의 영향이란 것이 꼭 전쟁기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장의 앞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6.25전쟁기 시'와 '6.25전쟁시', '6.25전쟁기 전쟁시'를 각각 달리 표현한 것이다. 필자가 6.25전쟁기의 전쟁시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전쟁기의 작품만이 전쟁시라는 견해가 아니라 연구대상을 양적으로 제한하여 한층 치밀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6.25전쟁시 연구는 전쟁시의 고유한 성격인 참여시적 성격 아래 남북한의 정치성 짙은 작품을 한 자리에 포괄하여 다룰 수 있다. 남북한의 작품이 보여주는 공통의 가치관과 정서를 발굴하여 정리하고, 도식적 작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미학적 태도와 같은 주제 아래 남북한작품을 함께 다루는 작업이 이어진다면 그 동안 이질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북한문학 이해의 태도

북한 작품에 대한 연구는 평가기준부터 문제가 된다. 65년 분단사를 통해 이질성이 심화된 남한의 비평적 시각으로 북한의 작품을 보는 것이 남한 연구자의 문제라면, 북한 내부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보는 시각이 매 시기별 정치적 입장의 변화에 따라 단 번에 달라지는 것은 북한

하는 원형세계에 있음을 실현한 것이다.”

진순애, 위의 논문, 244쪽.

34) 진순애, 위의 논문, 264쪽 참조.

연구자의 문제이다. 북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는 김경숙의 정리가 유용하다.³⁵⁾

북한의 경우 1967년 이전에는 ‘맑스레닌주의’가, 그 이후는 ‘주체사상’이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³⁶⁾이었고 최근에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김정일을 중심으로 미세하게 변화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정치적 노선과 문학사적 평가의 변화는 6.25전쟁기 문학에 대한 시대별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25전쟁기의 노선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조선문학 통사(하)』(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편, 1959)³⁷⁾에는 문학인이 “인민과 군대를 승리에로 고무 추동하며 교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정열을 다 바”³⁸⁾치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호응한 것을 전쟁기 문학의 의의로 밝힌다. 전쟁시 작품의 특징으로는 대중적 영웅주의의 발현에 유념한 것이라 하며, 작품의 주제에 따라 ①전선에 관한 제마³⁹⁾, ②후방의 제마, ③수령송가, ④국제 친선의 제마, ⑤미제만행 규탄 제마를 다룬 것 등으로 분류한다.

35) “해방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북한은 정치적 의도나 이념적 요구에 따라서 ‘역사 꾸미기’를 도모해 왔고, 북한문학의 핵심적 과제는 ‘김일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건설과 투쟁 그리고 승리의 역사’쓰기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었다. 해방 직후에는 건국의 역사를 쓰고, 전쟁 직후에는 조국해방전쟁사를 쓰며, 전후 시기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개가를 알리고, 1950년대 말부터는 ‘천리마 대 고조’의 위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주체 시대에는 수령의 영도사를 쓰는 것이 북한문학의 임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작가들은 자신이 목도하고 체험한 사실들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자나 보고자가 되어 선협적으로 주어진 ‘새 역사 쓰기’의 내용을 되풀이해 왔고, 이로써 인민들을 ‘대중적 나르시시즘’에 빠뜨려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초창기 남한 연구자들이 지녀 왔던 편향된 시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문학 작품들 또한 이와 같은 견해에 의거하여 연역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경숙, 『북한현대시사』, 태학사, 2004, 20쪽.

36) 金成洙, 「북한학계의 우리문학사 연구 개관」,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창작과 비평사, 1991) 411쪽 참조.

37) 1988년 남한의 인동사에서 출판된 것을 텍스트로 함.

38) 『조선문학 통사(하)』(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편, 1959) 234쪽.

39) ‘테마’와 같은 말이다. 『조선말대사전』(북한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편, 1992) 869쪽 참조.

김명수는, 작품의 선동성이 사상적 명백성과 목적 지향성을 더욱 선명히 함으로써 작품의 전투적 기능을 제고하였음을 전쟁기 시의 특징으로서 높이 평가한다. 서정시까지도 정론적 성격을 띠었고 전황과 밀접한 내용을 다룬 점을 정당한 것으로 본다.⁴⁰⁾ 작품을 표현 기법이나 사조보다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은, 이후 북한문학 작품을 구분할 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박종원과 류만의 『조선문학개관Ⅱ』(사회과학출판사, 1986)에서는, 이찬의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해방 후 시문학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하며, ‘충성의 송가작품’이 활발히 창작된 점을 6.25전쟁시의 최대 성과로 강조한다. 서사시 같은 장시가 발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영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함이라 설명하는 등 무엇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준다.

김일성 사후에 출판된 『조선문학사 Ⅱ - 해방후편(조국해방전쟁시기)』(사회과학출판사, 1994)에서는 새로운 수령인 김정일을 중심으로하는 미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의 문학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김정일의 작품이 전쟁시의 대표작으로 등장한다. 기존에 발표되지 않았으나 김정일이 어린 시절 창작했던 것이란 설명과 함께 <조국의 품>(1952)과 <축복의 노래>(1953)를 소개한다.

갑자기 등장한 김정일의 작품이 전쟁시의 전형이 된 것이다. 북한의 대표적 특징인 서사시 분야에 있어서도 그 동안 조기천이 대표적 시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역시 언급된 적이 없었던 김람인의 작품 <강철청년부대> (1950)가 서사시의 대표작으로 등장한다. 물론 김람인을 발굴한 성과도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으로 설명한다.⁴¹⁾

40) 김명수, 「시대정신의 날개-시문학」, 『해방후 우리 문학』(1958. 조선 작가동맹) 176쪽 참조.

41) 북한문학사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남송우의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김중하 편, 국학자료원, 2005) 25-66쪽을 참조할 것. 이 외에도 김용직의 『북한문학사』(일지사, 2008)도 최신 성과이다.

북한작품에 대한 남한의 연구는, 1988년 해금조치 이전에는 남한문학 또는 본연의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작품을 평가하였기에 북한문학의 강한 정치적 성격을 부각하여 남북한 문학의 차이를 더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⁴²⁾ 해금 이후에는 보다 많은 작품을 접하고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문학사의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⁴³⁾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남북한 문학의 공통적인 면모를 찾고자 하며, 이질화 현상을 낳은 정치적 성향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북한문학 작품을 한층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연구들⁴⁴⁾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 이후의 한국문학사에서 분단시대의 북한문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다. 이러한 견해들이 이

- 42) 구 상, 「북한의 시」, 『통일정책』, 국토통일원, 1978.
 양태진, 「월북작가론」, 『통일정책』, 국토통일원, 1978.
 김병린, 「북한의 시」, 『북한의 문학』,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7.
 홍기삼, 『북한의 문예정책과 문예이론 연구』, 1979.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 1985.
- 43) 성기조, 『북한의 비평문학』, 신원문화사, 1989.
 권영민 편,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윤재근/박상천 공저, 『북한의 현대문학Ⅱ』, 고려원, 1990.
 성동민, 「남북한 전시문학의 양상 : 전시문학론의 상호 대비」, 『한국어문학연구』 43, 2004. 8.
- 44) 오현주, 「북한의 혁명문학 40년」, 『사회와 사상』, 1989. 2.
 김재홍, 「해방 40년 남북한 시의 한 변모」, 『한국현대시사의 쟁점』, 시와 시학사, 1991.
 임도한, 「한국전쟁기 전쟁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2.
 이지엽, 『한국 전후시 연구』, 태학사, 1997.
 홍용희,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시적 대응 비교 고찰」, 『경희대 인문학연구2』, 1998. 12.
 성동민, 「남북한 전시문학의 양상 : 전시문학론의 상호 대비」, 『한국어문학연구』 43, 2004. 8.
 김중희, 「북한문학에 나타난 6.25동란」, 『한민족어문학』49, 2006. 12.
 한경희,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국가주의의 시선」, 『한국시학연구』21, 2008. 4.
 진순애, 「남북한 분단시와 통일시에 있어서의 평화의 정치성 연구」, 『비평문학』 26, 2007. 8.

루는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는 정치성에 종속된 기형적 문학이라는 견해와 북한의 역사적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 실체로서 그 나라의 문학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북한 전쟁시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작품 창작이 문단 내지 당의 지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전쟁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지향한다는 점. 셋째 작가의 실제 종군체험을 중시한다는 점. 넷째 전황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메시지를 충분히 담기 위해 서사시 형식을 선호한다는 점. 다섯째 작품의 원본성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당대의 지침에 따라 수정이 쉽사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필자는 북한전쟁시를 분석하면서 당파성과 감상성을 작품분석의 두 기준점으로 삼은 다음 각 작품이 두 기준점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하는지를 점검하고 작품의 위치와 시인의 실제 운명이 이루는 양상을 살펴본 바 있다.⁴⁵⁾

당파성은 북한의 시인들이 창작에 임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사항으로서 작품의 강한 정치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면서 시인 자신이 지닌 고유한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감상성은 시인이 전쟁을 체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낸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작품의 문학성을 보완해주기도 하므로 강한 정치성을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해 예술가로서 선택한 태도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감상성의 수준에 따라 작품의 문학성을 보완해주기도 하고 긴장감을 저하시켜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김경숙도 필자와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의 시를 서정시와 서사시라는 두 장르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각 장르의 개념과 실제 작품이 이루는 관계들을 정리하였다. 김경숙은 더 나아가 이러한 장르적 분석 작업을 통해 남북한의 이질적 작품을 한 자리에서 다룰 수 있으므로 남북한의 통일된 시사체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⁴⁶⁾

45) 임도한, 「6.25전쟁기 북한 전쟁시의 한 특성」, 『동두천-거제 문인협회 주최 전쟁 문학회 발표문』, 2008. 10.

46) “여기에서 제시한 서정시 장르와 서사시 장르에 대한 각각의 분석 틀이 북한 시

김경숙과 필자의 연구와 같이 당파성과 감상성, 서정시적 성격과 서사시적 성격 등의 기준을 발굴하여 작품을 총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도들이 이어진다면 이질성을 강조하는 분단문학적 한계에서 벗어나 통일된 시대의 문학사 기술에 필요한 성과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V. 6.25전쟁기 문단의 양상

남북한 문단 모두 전쟁 발발과 함께 종군문단으로 전환되었다. 문학사 정리를 위해서는 6.25전쟁기 문단의 양상을 규명하여 해방기 문단과 전후 분단문단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어야 한다. 해방기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를 말한다. 이 기간은 남북한이 각각 독자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후기로 나눌 수 있다.⁴⁷⁾ 남북한 독자정부 수립 이전인 전기 문단은 좌익계가 주도하고 우익계는 대타적 반응을 보인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당시 좌익계 문인의 활동을 정리하면 먼저 1945년 8월 16일 해방 다음날 임화 주도로 「조선문학건설본부」가 결성되어 남로당의 노선에 따라 ‘진보적 리얼리즘’을 기준으로 내세운다. 이어서 1945년 9월 17일 구카프계인 한설야, 윤기정이 주도하여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을 결성한다. 이 조직은 9월 30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으로 확대되며 북로당의 노선과 맥이 상통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주창하였다.

사를 서술하는 문제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것을 남한의 사사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한 시문학을 하나의 틀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일관되고 통일된 체계 위에서 남북한 시사를 서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경숙, 『북한현대시사』, 태학사, 2004, 42쪽.

47) 해방기 문단사를 정리한 내용은 필자의 앞선 석사논문(22-34쪽)을 중심으로 정영진의 『통한의 실종문인』(문이당, 1989)과 앞서 소개한 김용직, 권영민, 김경숙의 문학사에서 문단사를 다룬 부분을 참조하여 정리함.

위의 두 조직은 약 4개월 간 남로당과 북로당의 대립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으나 1945년 12월 13일 「조선문학동맹」으로 통합되고 「조선문학가동맹」으로 개칭한 다음 1946년 2월 24일 「조선문화단체총연맹」으로 확대되어 해방기 전기의 좌익문단을 정리하게 된다. 당시 문인 전체의 2/3 이상이 좌익문단 활동에 가담하였다.

우익계의 경우는, 박종화, 김광섭, 이헌구 등이 주도한 「중앙문화협회」가 1945년 9월 8일 결성된 이후 1945년 9월 13일 「전조선문필가협회」로 발전한다. 참가 문인의 역량을 고려할 때 좌익계와 대립할 역량을 갖춘 조직은 유치환,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등 소장파가 주도하여 1946년 4월 4일 결성한 「조선청년문학가협회」가 처음이다.

「조선청년문학가협회」에는 청록파 시인 3명과 원로시인 일부 및 김영랑 등이 참여하였고 좌익계의 ‘혁명적 낭만주의’와 ‘진보적 리얼리즘론’에 맞서는 ‘순수론’과 ‘생리의 문학론’⁴⁸⁾을 주장했다.

좌우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파 문인으로 백철, 김광균, 염상섭 등이 있었으나 강력한 이념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해방기는, 중간파의 활동이 두드러질 수 없는 정황이었다.

해방기 후기는 남과 북의 문단이 각각 우익과 좌익문단으로 확립되는 시기이다. 남한 우익문단은 문인의 대거 월북과 국가보안법 제정(1949)을 계기로 1949년 12월 9일 창립된 「한국문학가협회」의 발족으로 확립된다. 좌익문인 중에서 김태준과 유진오 등은 무장활동으로 검거되어 처형되었고 임화, 이원조, 김남천 등 남로당계 문인과 구 카프계열의 문인 대다수가 월북한다.

북한의 경우, 해방 3개월 후인 1945년 10월 평양의 문인을 위주로 「평양예술문화협회」를 결성하였고 1946년 1월 김사량을 위원장으로 「평양

48) 좌익문단의 논의가 계급적 이념성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우익문단의 논리는 그 문학적 실천의 방략이나 이념적 지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비정론적 특징이 있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48쪽 참조.

지구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을 조직한다. 남한 좌익문인의 월북을 계기로 이기영, 한설야 등 1차 월북작가와 이북명, 안함광 등 재북문인을 중심으로 1946년 3월 35일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을 결성한다. 여기에는 평안북도의 안룡만, 이원웅, 김우철, 함경북도의 김복원, 천정송, 함경남도의 한석, 강원도의 최인준, 황해도 해주의 박팔양, 박세영, 윤기정, 안막 등이 가담하였다. 1946년 10월 「북조선예술총동맹」으로 확대되면서 좌익문단 조직이 완료된다.

조직결성에 이어 북한의 문인들이 당의 정치노선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은 일련의 문인탄압 사건들로 확인할 수 있다. 1946년 11월에는 한설야의 소설 <모자>가 비판을 받았고, 1947년 1월에는 시집 『응향』에 수록된 작품이 사상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인준 주도의 비판을 받았고 구상이 월남하는 계기가 된다. 양명문은 『관서시인집』에 발표한 <바람>이 내용부족을 이유로, 모기윤의 『문장독본』과 황민의 <한옷을 입고 일한다> 등은 당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당 중심의 문단이 내적으로 정비된다.

6.25전쟁 전 북한의 문인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장차 북한문단의 주류로 성장하는 소련파로 조기천, 민병균, 임하, 이정구, 감사량 등이 속하고, 송영, 박세영, 이동규, 윤기정, 조벽암, 한설야, 이북명, 이찬 등 1차 월북자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계열의 구카프파가 있다. 임화, 김남천, 이태준, 안희남 등은 2차 월북파로 분류할 수 있으며 김이석, 함윤수, 양명문, 강소천 등 무소속파도 남한의 중간과 문인처럼 존재했다.

전쟁 전 이미 강한 정치성을 갖추었던 남북한 문단은 6.25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신속히 중군문단으로 변모한다. 남한의 경우⁴⁹⁾ 1950년 6월 26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대책회의를 열었고 교회동과 모운숙이

49) 남한 중군문단의 양상에 대해서는 신영덕의 작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영덕의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19-45쪽 참조.

서울시민을 진정시키기 위한 강연회를 열었으며 김윤성과 공중인은 격시를 낭독했다. 6월 27일에는 조지훈, 서정주 등이 <비상국민선전대>를 조직했고 서울의 함락 이후 김송, 이한직, 박목월, 구상, 이정호, 박화목, 립공재, 이송녕, 이원섭 등이 대전에서 <문총구국대>를 조직하였다.

1950년 9월 서울수복과 함께 <문총구국대>가 자진 해산하자 문인들의 종군활동은, 각 군별 종군작가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적으로 복진하는 국군을 따라 활동한 경우도 있다. 특히 북한체제에 남다른 반감을 가졌던 월남문인들이 강한 반공정신을 내세우면서 종군활동에 적극적이었다.⁵⁰⁾

전쟁기 문인들의 종군활동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따라 전개되었다기보다는, 전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 정훈감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문인 자신의 애국심,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생활의 필요성 등 다양한 동기⁵¹⁾가 계기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시인이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데 현실적으로 유리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 문단⁵²⁾은,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자기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원썩들을 짧은 기간에 소탕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전쟁 승리로 동원하”⁵³⁾라는 김일성의 지시⁵⁴⁾에 따라 “애국주의를 함양하고

50) 김동명, 안수길, 김진수, 임옥인, 황순원, 구상, 조영암, 최상덕, 최태웅, 오영진, 유정 등 전쟁 전에 월남한 문인들은 중앙문단에서 민족진영에 가담하여 활동하였으며 1949년에 조직된 <월남문학자클럽>을 중심으로 <문총구국대>에 적극 참여하였다. 김이석, 강소천, 한정동, 함윤수, 박남수, 장수철, 원용서, 박경중, 한교석, 이인석, 김영삼, 양명문 등. 전선의 복상을 계기로 남하할 수 있었던 문인들은 각 군의 종군작가단원으로 활약했다.

51) 신영덕, 앞의 책, 34쪽 참조.

52) 전시 북한의 문단사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북한의 문학사들을 비롯하여 김용직의 『북한문학사』(일지사, 2008), 와다하루끼의 『한국전쟁』(서동만 역, 창작과비평사, 1999), 김경숙의 『북한현대시사』(태학사, 2004)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여 정리함.

53) 김일성,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1950.6.26 방송연설) 『김일성 저작선집1』, 학우서방, 1967, 276쪽.

54) 구체적인 지침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와 종국적 승리에

인민군대의 영웅성을 부각함으로써 전인민의 전쟁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문인의 책무로 삼았다.⁵⁵⁾ 전쟁 발발 하루 만인 1950년 6월 26일 김사랑, 김조규, 한태천, 전재경, 박세영, 이동규, 김복원, 박용걸 등 20여명이 「중군작가단」을 구성하여 전선으로 떠났다. 이들은 접령지에서 선전문화공작을 하면서 전선 르포르타주를 써서 후방으로 송고한 끝에 7월 중순부터 작품이 후방에 도달했고 김사랑의 글이 인기를 끌었다.⁵⁶⁾

북한의 중군 문인들은 남한의 문인과 달리 최전선까지 동행하면서 전투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 창작에 임했다. 함세덕은 전투에 직접 참여했다가 수류탄 오발로 폭사했고, 조기천은 공습에 목숨을 잃었으며 김사랑도 낙동강 전선까지 중군했다가 북으로 후퇴하는 길에 병사한다. 북한 시인이 자신의 직접적인 전투체험에 기초하여 창작한 작품으로는 김람인의 중군시 <강철청년부대>가 대표적이다.

1953년 1월에 이르면 이승엽, 조일명, 임화, 이강국, 이원조, 배철, 박승원, 윤순당, 맹종호, 조용복, 백형복, 설정식 등 남로당계 문인들에 대한 숙청이 단행되어 일부 시인은 사형에 처해지고 살아 남은 문인들도 문단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숙청작업의 결과 권력을 잡은 문인들이 전후 분단기의 북한문단을 이끌게 된다.

각종 자료를 통해 북한 문인들의 성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찬, 민병균, 이정구, 김복원, 안용만, 김우철, 김조규, 김람인 김우철, 안

대한 확고한 신심을 뚜렷이 표현하여야 하며 자기들의 작품이 싸우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그들을 최후의 승리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한다는 김일성의 언급이다.

김일성, 「우리문학예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51. 6. 30 작가, 예술가들과의 대화), 『김일성저작선집1』, 학우서방, 1967, 289쪽 참조.

55) 소련에서도 보통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택하여 英雄主義나 愛國心과 같은 고상한 테마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시사적인 소재를 통하여 창작에 힘쓴 것으로 파악된다. Marc Slonim, *Soviet Russian Literature : Writers and Problems, 1917-1977*, (N.Y., Oxford Univ. Press, 1977) 임정식, 백용식 역, 『소련 현대문학사』, 열린책들, 1989, 205-301쪽 참조.

56) 현수, 『적지 육년의 북한문단』, 국민사상지도원, 1952, 177-178쪽 참조.

함광, 한식, 최인준, 최명익, 김상오, 이갑기, 남국만 등 재북시인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출신으로서 친체제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데뷔한 시인으로서 전후 주체문학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 김사량처럼 해방 전 외국에 머물다가 북한으로 바로 입국한 문인들도 함께 분류할 수 있다.

재북시인과 대비되는 월북문인 중에는 박세영, 박아지, 발팔양, 이기영, 한효, 이동규, 윤기정, 신고송 등 1차로 월북한 문인들이 있다. 이들은 카프해소를 반대했던 경력을 공통으로 하며 재북시인들과 북한문단 조직에 적극 나섰고 사상성과 당파성을 중시하면서 1950년대 말까지 북한문단을 주도했다.

1947년 말 2차로 월북한 임화, 오장환 등 남로당계는 전쟁 중 종군활동에 적극적이었으나 휴전되기 전부터 숙청되기 시작하였다. 2차 월북문인보다 늦게 월북한 이용악, 조영출, 조벽암 등은 남로당파에 비해 가벼운 숙청을 당하였고 위촉되긴 했으나 나중에 재기할 수 있었고 예술성이 가장 고조되었던 전후 천리마운동 시대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기성 문인들 외에 전쟁을 계기로 등장하는 시인그룹도 있었다. 이들의 출신과 이후 활동을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조기천⁵⁷⁾, 김순석, 동승태, 이맥, 정문향, 정서춘⁵⁸⁾, 강승한, 한명천, 백인준 등은 해방과 함께 북에서 등장한 신인으로서 숙청의 빌미가 될 전력이 없었으며 북한정부의 지침에 적극 동조하고 주도하는 왕성한 활동상을 보인다.

월북 경력자 중에도 원래부터 북한이 고향인 김학연과 김상오는 큰

57) 1986년 판 『조선문학개관』에는 1913년 11월 6일 함경북도 회령 출생으로 소개되었으나 얼마아마 “작가”출판사(편) 『시월의 해발』(1970) 23쪽에는 1913년 연해주 소빠쓰크 출생의 재소 한인 2세로 소개되고 있다. 이후 1947년 로동신문에 <백두산>을 발표하면서 등장하여 서사시 풍의 북한시를 대표하는 작가로 부각됨.

58) 1923년 평안북도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사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다음 13살부터 노동현장에 나서야 했음.

저항 없이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이들의 학력이 낮았다는 점도 활발한 활동의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을 것이다. 남한 출신 중에서 상민, 이병철⁵⁹⁾, 김상훈, 최석두 등은 고학력자인데 월북 이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못하다가 숙청작업이 종료된 이후 활동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방기에 좌우익으로 나뉘었던 문인들은 남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계기로 남북한 각각의 좌우익 문단을 정립하였으며 전쟁을 통해 전후 분단문단의 모습을 확립하게 된다. 6.25전쟁기 남한의 작품 중에는 전쟁참여작품과 전쟁비판적 반전문학 작품이 함께 나타나며 모더니즘적 실험정신을 구현한 작품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문인들은 군인과 유사한 수준의 적극적 종군태도를 보여주며 전쟁 결과처리와 함께 진행된 숙청을 통해 당파성에 철저히 종속된 문단을 확립하게 된다. 북한의 문인들이 전후에 보여주는 활동상의 차이는, 문인들의 정치적 기반 내지 성향의 차이와 상당히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문인들이 연출한 전쟁기 문단의 양상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문인의 개인사와 작품양상을 더욱 충실히 매우는 작업에는 지역문학 연구 분야에서 특별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지금까지 6.25전쟁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대표적 문제 네 가지를 규정하고 각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를 검토하면서 6.25전쟁시 연구가 분단문학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찰해보았다. 각 문제별 검토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맺도록 하겠다.

59) 전쟁발발 시 남한에서 비전향 사상범으로 수감되어 있다가 북한군의 서울 점령과 함께 풀려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첫째 6.25전쟁기 시 작품을 확인한 결과 남한에서는 단행본 시집 109권의 목록을 확인하였고 그 중 100권 정도의 작품은 직접 확인하였다. 단행본 시집 외에도 각종 간행물에 수록된 작품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시에도 상당한 분량의 작품이 창작되었다 하겠다. 이 정도 분량의 작품은 문학사 작업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수준이다. 북한의 작품으로서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작품들은 약 250편 정도이다. 남한의 작품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지만 북한 작품의 도식성을 고려할 때 북한작품의 전반적인 성격을 가능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 하겠다. 남한의 전쟁시는 전쟁기 작품들을 전부 검토하는 작업을 선행한 다음 작품별로 전쟁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작품은 당대 창작된 작품 거의 대부분을 전쟁시로 분류해도 별 무리가 아닌 수준이다.

둘째 전쟁시의 평가 문제는 포괄적인 태도가 분단문학 극복에 유용함을 보여준다.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작품 모두를 전쟁시로 규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 한 전쟁의 의미가 전쟁 당사국에 따라 독특한 의미를 지니듯이 전쟁문학도 해당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쟁수행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의 참여시와 전쟁을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비판시가 각각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필자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체험을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또 다른 체험과 의미를 생성한다는 것을 전쟁문학의 독특한 의의로 규정하고자 한다. 한편 6.25전쟁시에서 남북한 작품의 공통점으로 파악된 ‘고향심상’과 ‘가족애’, ‘민족주의’ 등은 분단문학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 깊은 근거로 자리할 것이다.

셋째 북한문학 작품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강한 정치성을 지닌 작품에 대한 태도로 귀결된다. 북한의 작품들은 창작 시기의 당 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평가 면에서도 평가 시기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작품은 시기에 따라 별 다른 설명 없이 개작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적하면서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미학적 기

준을 발굴하여 그 기준 아래 분류하고 고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북한의 이질적 작품을 함께 다루는 방법으로서 ‘당파성과 감상성’ 또는 ‘서정시와 서사시’와 같은 대립항을 설정하고 두 개념 사이에 각각의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하는 작업이 실천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쟁기 문단의 양상을 살펴 본 결과 문인들의 계보와 문단 동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기 문단의 양상을 규명하는 작업은 좌우의 문인들이 해방공간에서 취한 태도와 전쟁기간의 행보 그리고 전란을 통한 부침을 통해 전후 남북한 문단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오늘에까지 헤게모니를 잡은 문인과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인의 지형도를 정리하는 자료가 된다. 전쟁을 통해 남한문단은 전쟁문학에 대한 논의와 모더니즘적 실험 등을 통해 문학적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북한문단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당에 종속된 면모를 갖는다.

6.25전쟁시 연구는 문학사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는 전쟁기 시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한 기본 작업이다. 각 문제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결과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북한의 작품에 대하여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전쟁시라는 강한 특성에 비추어 남북한의 작품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작업이 분단문학 극복의 한 방법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남북한 전쟁시의 공통점을 보다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일정한 미학적 기준 아래 남북한의 작품을 분석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진다면 장차 도래할 통일문학사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숙, 『북한현대시사』, 태학사, 2004.
- 김성수,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 비평사, 1991.
- 김재홍, 『한국현대시사의 쟁점』, 시와 시학사, 1991.
- 김종희, 「북한문학에 나타난 6.25동란」, 『한민족어문학』49집, 2006, 267-284쪽.
- 김중하 편,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학자료원, 2005.
- 문선영, 『한국전쟁과 시』, 청동거울, 2003.
- 박태일, 『한국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 소명출판, 2004.
- 성기조, 『북한의 비평문학』, 신원문화사, 1989.
- 성동민, 「남북한 전시문학의 양상」, 『한국어문학연구』43집, 2004, 241-262쪽.
- 신영덕,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 오현봉, 『한국현대문학의 사회학적 시고』, 형설출판사, 1990.
- 윤재근/박상천 공저, 『북한의 현대문학Ⅱ』, 고려원, 1990.
- 이기윤, 신영덕, 임도한 편,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국학자료원, 2003.
- 이승하, 「6.25전쟁 수행기의 한국시 연구 : 『전선문학』 발표 시를 중심으로」, 『배달말』 42호, 2008, 93-125쪽.
- 이지엽, 『한국 전후시 연구』, 태학사, 1997.
- 임도한, 「한국전쟁기 전쟁시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994.
- _____,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체험성 연구」, 『한국시문학』15집, 2004, 173-198쪽.
- _____, 「1950년대 전쟁시의 일면」, 『2006한국전쟁문학세미나 발표집』, 2006, 31-57쪽.
- _____, 「6.25전쟁기 북한 전쟁시의 한 특성」, 『동두천-거제 문인협회주

- 최 전쟁문학회 발표문』, 2008.
- 정남채, 「한국전쟁기 종군시의 주제의식과 미적특성 연구」, 경성대 박사 논문, 2007.
- 정선태, 「총력전 시기 전쟁문학론과 종군문학 : 『보리와 병정』과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5권 2호, 2006, 131-251쪽.
- 정영진, 『통한의 실종문인』, 문이당, 1989.
- 정원채, 「한국전쟁 시기 남북한 전쟁시 비교 연구」, 『한성어문학』24집, 2005, 119-141쪽.
- 진순애, 「남북한 분단시와 통일시에 있어서의 평화의 정치성 연구」, 『비평문학』26호, 2007, 239-270쪽.
- 한경희,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국가주의의 시선」, 『한국시학연구』21호, 2008, 201-228쪽.
- 한정호, 「경인전쟁기 시의 가족체험」, 『지역문학연구』6호, 2000, 21-57쪽.
- 현 수, 『적치 육년의 북한문단』, 국민사상지도원, 1952.
- 홍용희,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시적 대응 비교 고찰」, 경희대 『인문학연구』2호, 1998, 133-154쪽.

<Abstract>

Korean War-poetry and an Effort to overcome Polarized Literature

Lim, Do-Han

This research examines how Korean War-poetry contributed to overcoming the problem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hat i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

In order to study Korean War-poetry, four problems listed below emerge.

First, hardship to find wartime works due to lack of existing works

Second, discourse in defining war-poetry

Third,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works

Fourth, problem of explaining literary community during Korean War

After a through research regarding above problems,

War-poetry actively participates in delivering war campaign, and in contrary tries to embody anti-war sentiment.

However,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war-poetry is to express the extraordinary experience of war through the literary means.

Research on Korean War-poetry deals with both North and South Korean literatures because it is war-poetry. Instead of criticizing the difference in North Korean literature, finding similar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emphasizing the esthetic effort of the North will contribute to the literary history of the forthcoming unified Korea.

Key Words : Korean War-poetry, Experience of war, Polarized literature, Partiality, Sentimentality

■ 논문접수 : 2010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7월 28일

■ 게재확정 : 2010년 7월 31일